

2016.07.16~22

주간

주요 베트남비즈니스 정보

Contents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베트남기업 동향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사무소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대한전선, 베트남 단독법인 출범... "제2 글로벌기지로"
- ▶ 코트라 "베트남 진출 韓 기업, 경영성과 다소 저조"
- ▶ 서울보증, 우리은행과 베트남 모기지 시장 진출
- ▶ 에쓰씨엔지니어링, 베트남 복합비료공장건설첫삽
- ▶ 태광실업그룹, 베트남에 36만톤 규모 비료공장 건설
- ▶ NH투자증권, 잠재력 높은 아세안 베트남 집중
- ▶ 우리은행SGI 서울보증, 베트남 모기지 시장 진출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6월 신설 외투 기업 및 지점 224건, 호치민이 최다
- ▶ 상반기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 21% 늘어난 470만명
- ▶ 세네갈 땅콩, 해충 감염으로 수입 금지

◆ 베트남기업 동향

- ▶ 베트남 Long Son 정유소, 올해 착공 못해
- ▶ 광케이블 계약 건수, 1년 사이 4.5배로, FPT시장 점유율 급확대
- ▶ 수입 칼라 강판 국산 상품 보호 적용 만나
- ▶ 베트남 항공사, 4성급 국제 항공사로 자리잡다
- ▶ 7개의 다단계 기업 조사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 하노이, 정확한 원산지 정보 위한 생산모형 진행
- ▶ 신용정보 기업은 최소 300억 동 의 공칭 자본금 보유해야
- ▶ 건설 감정평가 활동 조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
- ▶ 2016년 상반기 항공 여객 수 폭발, 30% 늘어난 2500만명



대한상공회의소

- ▶ 베트남 6 월 무역 수지 1700 만 USD 적자, 상반기에 17 억 USD 흑자
- ▶ 베트남 오토바이 판매, 상반기 144 만대
- ▶ 베트남 내년 최저임금 5~10% 오를듯...한국기업 인건비 가중
- ▶ 베트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12 명 추가 입국금지
- ▶ 굿피플-씨젠의료재단, 베트남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 ▶ 유커에 빨난 베트남 관광도시 다낭 상인들 "中 위안화 NO"
- ▶ 베트남비관세장벽대응채널구축된다
- ▶ 산재 직업병의 위험성이 높은 11 개 업종의 노동 안전 위생 대책 의무화
- ▶ 베트남 2016 년 상반기 통신 분야 매출액 93 조 5000 억 VND
- ▶ 2017 년 최저 임금 안 노동 총연맹 + 11%인상 제안, 노사간 괴리
- ▶ 자동화로 섬유 신발 제조 노동자 86%가 실직 걱정 - ILO 보고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 동향

대한전선, 베트남 단독법인 출범... "제2 글로벌기지로"

TCV 로 새출발... 2020년 연매출 1억 9천만달러 목표

- 대한전선[001440]이 베트남 법인의 경영권을 100% 확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함
- 대한전선은 2005년에 합작투자자로 설립한 베트남 법인 TSC(Taihan Sacom Cable)의 남은 지분(30%)을 모두 인수해 단독투자 법인으로 새로 출범한다고 22일 밝혔
- 법인명은 TCV(Taihan Cable Vina)로 바꾸고 대한전선 최진용 사장이 의장직을 맡음. 전날 베트남에서 열린 TCV 출범 기념식에서 최 사장은 "신규 설비와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베트남을 당진공장을 잇는 제 2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육성하겠다"며 "2015년 기준 3천 600만 달러였던 연매출을 2020년까지 1억 9천만 달러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
- 최 사장은 "베트남 경제와 전력 시장의 성장 잠재력,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해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낙점했다"고 법인 지분 인수 배경을 설명함
- 베트남은 주변국들의 투자 증가로 전력·통신망 수요가 급격히 늘며 주요 전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
-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 중동 등 주요 전력 시장과도 인접해 있어 이들 지역의 발주 물량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대한전선은 TCV의 경쟁력 확대와 사업 고도화를 위해 초고압케이블과 증용량 가공선 등 고수익 제품에 대한 공장 설비 투자를 계획 중임
- 이와 함께 당진공장에서 원자재를 조달, 품질 안정성을 높이고 대한전선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영업력을 지원하기로 함
- 대한전선 관계자는 "베트남 TCV 지분의 성공적인 인수와 동시에 사우디 전력기기 공장 신설에 대해서도 합작투자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거점 확보에 구체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함
- 대한전선은 당진공장, TCV(베트남), M-TEC(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 전력기기 공장으로 이어지는 4각 구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임

* 출처: Yonhapnews, 07.22



코트라 "베트남 진출 韓 기업, 경영성과 다소 저조"

-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성과가 투자 규모에 비해 다소 저조하다는 분석이 제기됨
- 코트라(KOTRA)는 20 일 발간한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GVC: Global Value Chain)과 과제: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힘
-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누적 기준으로 150 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투자한 해외 지역 중 투자규모 3 위에 해당하는 수준임
- 그러나 우리 진출기업의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2.3%와 0.6%에 머물렀다. 베트남에 진출한 아시아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3.4%)과 당기순이익률(2.6%)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현실화되면 베트남 수출 산업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함
- 우리나라는 메가 FTA 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현실화를 기대하고 있다. RCEP 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 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6 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협정으로 올해 타결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임
- 메가 FTA 타결시 우리나라는 다양한 나라에서 더 싼 값에 부품 등 중간재를 수입할 수 있다. 이 중간재로 제품을 만들어 베트남에 수출하면 그만큼 부가가치를 더 많이 생김
- 가령 메가 FTA 관세 혜택을 받아 50 원에 수입하던 중간재를 20 원에 수입할 경우 30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윤정 코트라 글로벌전략지원단 전문위원은 "메가 FTA 등을 활용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성과도 더 개선될 것"이라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메가 FTA 등 글로벌 관점에서 내실 있는 베트남 진출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밝힘

* 출처: Yonhapnews, 07.20

서울보증, 우리은행과 베트남 모기지 시장 진출

- SGI 서울보증은 베트남 호찌민에서 우리은행과 'SGI 서울보증-우리은행 베트남 모기지 시장 공동개척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8 일 밝힘



대한상공회의소

- 서울보증과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 베트남 모기지 상품·서비스 개발 ▲ 한국 내 기존 우수 협업상품의 베트남 현지화 ▲ 홍보 및 마케팅 등을 함께 수행하기로 함
 - 서울보증과 우리은행은 베트남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SGI 서울보증-우리은행 모기지론 보증상품'도 출시함
 - 이 상품은 국내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음
 - 서울보증 관계자는 "국내에서 검증된 다양한 보증상품을 글로벌 시장에 전파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함
- * 출처: Yonhapnews, 07.18

에쓰씨엔지니어링, 베트남 복합비료공장건설첫삽

- 에쓰씨엔지니어링 최초의 해외 EPC 프로젝트가 본격 궤도에 올랐음. 에쓰씨엔지니어링은 20일 베트남 호치민 히엡푹 공단 내 부지에서 복합비료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착공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힘
- 이날 착공식에는 에쓰씨엔지니어링의 장정호 회장과 윤형근 사장을 비롯해 박연차 태광실업그룹 회장, 최규성 휴켄스 사장, 박노완 주호치민 총영사, 후엔 깍 망 호치민 부시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함
- 에쓰씨엔지니어링이 수행하는 베트남 복합비료공장 건설사업은 정밀화학 핵심소재 전문기업인 휴켄스의 베트남 현지법인 Korea-Vietnam Fertilizer 가 연산 36 만톤 규모의 고품질 NPK 비료(무기질(화학)비료) 플랜트를 베트남 호치민 히엡푹 공단 내 건립하는 프로젝트(NPK Project)임
- 에쓰씨엔지니어링은 201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설계, 구매, 시공에 이르는 EPC(종합설계시공)를 일괄 수행하게 됨
- 윤형근 에쓰씨엔지니어링 공동대표이사 사장은 착공식 현장에서 “45년간 축적된 에쓰씨엔지니어링의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수행역량을 집약해 베트남 최고의 복합비료공장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겠다”고 밝힘
- 윤 대표는 이어 “이번 해외 EPC 프로젝트의 수주경험과 공사실적을 토대로 수주확대 및 이익창출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신흥국 대상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글로벌 EPC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 에스씨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Korea-Vietnam Fertilizer 와 약 3600 만 달러 규모의 베트남 복합비료공장 건설공사에 대한 EPC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금액은 지난해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29.7%에 달하는 규모임

* 출처: Etoday.co.kr, 07.21

태광실업그룹,베트남에 36만톤규모비료공장건설

○ 태광실업그룹이 6000 만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에 36 만 톤 규모의 비료공장 건설에 나섬. 태광실업그룹은 20 일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히엡푹(Hiep Phuoc) 공단 내 부지에서 현지 복합비료공장의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힘

○ 태광실업그룹은 9 만㎡(2 만 7000 평) 부지에 6000 만 달러(한화 700 억 원)를 투자해 연산 36 만 톤 규모의 NPK(질소·인·칼륨) 복합비료공장을 건설함

○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직접 비료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공사는 SC 엔지니어링이며 15 개월의 공기를 거쳐 내년 9 월께 상업생산을 시작할 계획임

○ 태광실업그룹은 지난 5 월 비료사업 추진을 위해 베트남 현지법인 KVF 를 세웠다. KVF 는 태광실업이 51%, 휴켄스가 49%의 자본금을 출자해 만든 회사임

○ 휴켄스는 공장 운영과 회사 경영을 맡는다. 올해로 베트남 진출 22 년째를 맞는 태광실업은 베트남 진출 성공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판매 및 마케팅을 담당함

○ 그룹 측에 따르면 베트남은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국가로 비료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장려함

○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KVF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베트남 전체 NPK 복합비료의 9%를 담당하게 되며 연간 최대 1500 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출처: Etoday.co.kr, 07.20

NH투자증권,잠재력높은아세안베트남집중



대한상공회의소

- NH 투자증권은 하반기 유망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과 베트남에 주로 투자하는 '삼성아세안증권펀드 제 2 호'를 추천함
 - '삼성아세안 2 펀드'는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지역 핵심 5 개국과 베트남의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임
 - 선진국의 저성장·고령화 이슈와 달리 아세안 지역은 5% 이상의 높은 성장률과 함께 경제활동 가능인구 비중이 크고 소비 중심인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또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와 추가적 부양책들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빠르게 완화되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어 아세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와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올해 초부터 정부 지출 증가율이 반등하면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글로벌 재정 확대 정책 공조에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영국, EU 와 교역량과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주목받고 있음
 - 이 펀드는 약 20 년간 아세안 시장만 분석한 삼성자산운용 홍콩 현지법인의 전담 매니저가 운용하는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임
 - 전담 매니저는 오랜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해 적극적인 종목 교체로 꾸준한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추구함
 - 연초 이후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데 반해 이 펀드는 연초 이후 15%대의 수익을 기록(2016 년 7 월 13 일 기준)하고 있다. 표준편차는 9.68% 수준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의 변동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한편 '삼성아세안증권펀드 제 2 호'는 해외주식 투자 전용 펀드로 전용 저축계좌를 통해 매수하면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비과세됨
- * 출처: Etoday.co.kr, 07.19

우리은행SQ서울보증,베트남모기지시장진출

- 우리은행은 18 일 서울보증보험과 공동으로 베트남 현지인 대상 '우리은행-서울보증보험 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밝혔



-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은 △베트남 모기지 상품·서비스 개발 △한국 내 기존 우수 협업상품의 베트남 현지화 △홍보 및 마케팅 공동추진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베트남 금융시장을 개척해 나갈 예정임
 - 이날 국내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우리은행-서울보증보험 모기지론'은 베트남 현지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로,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 추가하여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국내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과 유사한 개념임
 - 베트남 건설부 산하 주택 및 부동산시장 관리국에 따르면 2015년 1~11월 베트남 금융기관 부동산 대출총액(약 168억 달러)은 전년 대비 약 20% 가량 증가했으며 201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베트남 모기지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
- * 출처: Etoday.co.kr, 07.18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6월 신설 외투 기업 및 지점 224건, 호치민이 최다

- 베트남 각 성시의 계획 투자국 및 공단 관리 위원회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6월에 전국에서 신규 설립된 외국 기업 및 지점의 수는 224건, 등록 자본금의 합계는 약 6조 6740억 VND 임
 - 외자 및 로컬기업을 합쳐 이달 신규 설립 기업 수는 동 ▲ 2.6% 줄어든 9761개, 등록 자본금의 합계는 동 ▲ 22.6% 줄어든 78조 2990억 VND 임
 - 신설 외투 기업·지점을 지역별로 보면 호치민시가 80건으로 계속 최다. 이어 ◇ 하노이시:50건, ◇ 동남부 지방 빈중 성:21건, ◇ 메콩 델타 지방 롱 안 성:15건, ◇ 홍강 삼각주 지방 박닌 성:11건, ◇ 동남부 지방 동나이 성:5건, ◇ 홍강 삼각주 지방 하이퐁시:4건 등임
- * 출처: Vinahanin.com, 07.21

상반기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 21% 늘어난 470만명



- 베트남 통계 총국에 따르면 2016 년 초부터 6 월 말까지(상반기)의 외국인 관광객(국제 관광객)은 470 만 6324 명에 달했다. 2015 년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함
 - 6 월에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70 만 446 명으로 같은 해 5 월에 비하면 7.5%를 감소했지만 전년 6 월과 비교에서는 29.8%증가함
 - 6 월까지 해외 관광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다. 홍콩이 128.3%로 톱. 이하 중국(47.9%), 태국(35.3%), 한국(34%), 이탈리아(30.1%), 스웨덴(24.7%), 영국(24.6%), 스페인(22.7%) 등이 각각 증가했다. 한편 캄보디아의 관광객은 28.2%감소함. 6 개월간의 국내 여행자의 총수는 약 3240 만명임
- * 출처: Vinahanin.com, 07.16

세네갈 땅콩, 해충 감염으로 수입 금지

- 농업·농촌발전부 까오득팻(Cao Đức Phát)장관은 세네갈산 땅콩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는 결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단 결정의 효력은 7 월 11 일부터 60 일간임
- 중단 이유에 대해 팻 장관은 2016 년 2 월 18 일부터 6 월 14 일까지 세네갈에서 수입된 땅콩(48 개의 컨테이너, 용량 943 톤)이 *Trogoderma granarium* Everts, *Caryedon serratus* Oliveier 해충에 의해 감염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와 같은 해충들은 살아있는 상태였다고 전함
- 이 해충들은 위험한 해충들로 식물에 해로운 해충으로 검역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농업·농촌발전부에 따르면, 이 해충들은 농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특히 *Trogoderma granarium* Everts 같은 경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00 대 곤충 중 하나라고 강조함
- 또 이 해충들은 주로 작물에 피해를 끼치며 새끼 해충이라도 작물에 피해를 끼칠 수 있고 만약 이와 같은 해충들이 베트남에 들어 올 경우 베트남 농산물은 각 국가에 수출 금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해 베트남 농업뿐만이 아니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함
- 한편 2015 년에는 인도산 땅콩이 이와 같은 해충에 감염되어 수입 금지된 바 있음



* 출처: Vietnam-Korea Times, 07.20

◆ 베트남기업 동향

베트남 Long Son 정유소, 올해 착공 못해

- 몇 년간이나 유보됐던 Ba Ria-Vung Tau 성 Long Son 정유 석유 화학 콤플렉스(투자 총액 45 억달러)은 올해도 착공되지 못할 전망이다
- 7 월 14 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타이 SCG 의 Roongrote Rangsiyopash 사장 겸 회장은 현재는 재정적 문제만 남아 있으며 건설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말함
- 그러나 베트남에서 SCG 의 사회 공헌 활동 10 주년 행사에서 Rangsiyopash 씨는 언론사에 합작 출자율의 결론은 연말에 나올 것으로 그때 재정 정책이 분명히 정해지기 때문에 건설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은 내년 말이라고 함
- 총 면적 460ha, Long Son 석유 가스 공업 단지 내에서 2008 년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용지 회수나 파트너의 변경, 기타 여러 문제가 있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2013 년 말 시점에서 SCG 가 주식 28% 이상을 보유, 나머지는 QP, Petro Vietnam, Vinachem 이 갖고 있었으나, QP 는 2015 년에 철수, 현재 남는 것은 SCG 와 Petro Vietnam 뿐임

* 출처: Vinahanin.com, 07.19

광케이블 계약 건수, 1년 사이 4.5배로, FPT시장 점유율 급확대

- 베트남 정보 통신부 통신국의 인터넷 시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 케이블(FTTH) 서비스의 계약 건수가 최근 1 년간 크게 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 년 말 시점의 광 케이블 계약 건수는 전년 말의 4.5 배인 363 만건으로 급증함
- 2015 년 연간 신규 계약 건수는 282 만건으로 그 중 베트남 군대 통신 그룹(베토텔)이 101 만건, 베트남 우편 통신 그룹(VNPT)이 93 만 5000 건, FPT 정보 통신(FPT Holdings)산하 FPT 텔레콤(FPT Telecom)이 87 만 4000 건임



○ 2015년 말 시점의 광 케이블 시장 점유율이 가장 컸던 것은 베트남의 40.8%. 전년 말의 58.4%에서 크게 줄어들었지만 선두를 유지했다. 2위 VNPT로 점유율은 33.3%로 전년 말의 33.9%에서 약간 축소하고 있음

○ 한편 제 3위 FPT 텔레콤은 점유율을 전년 말의 6.0%에서 25.4%로 단번에 확대시켰다. 여기에는 이 회사가 자사 통신 케이블을 순차적으로 광섬유 케이블로 대체 전략을 취하는 배경이 있음

○ 또한 4월 말 시점에서의 전국의 광 케이블 계약 건수는 460만 여건으로 증가하고 ADSL 회선 계약 건수의 1.6배가 되었다. 6월 말 시점의 광 케이블 계약 건수가 2015년 말보다 무려 +30%증가한 반면 ADSL 회선 계약 건수는 무려 ▲ 60만건 감소함

* 출처: Vinahanin.com, 07.16

수입 컬러 강판 국산 상품 보호 적용 받나

○ 상공부는 최근 결정 2847/QĐ-BCT를 발표하고 컬러 강판에 대한 수입 제한 조사를 적용한다고 밝힘

○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합금철, 비합금, 코팅 또는 양극 처리된 알루미늄, 코팅 아연(컬러 강판), 냉연합금 등이 조사 대상이며, 각 HS 코드 7210.7010, 7210.7090, 7212.4010, 7212.4020, 7212.4090, 7225.9990, 7226.9919, 7226.9999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조사 결정은 3개 국내 기업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며, 이 3개의 기업들은 고소 서류를 작성하여 국내 상품 보호 적용을 통한 컬러 강판 총 물량 중 국내화 비율 25.17% 유지하는 보호를 요청했다고 전함

○ 이에 따라 상공부는 법령 규정 42/2002/PL-UBTVQH10에 따라 국내화 비율이 25%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임

○ 국내 기업들이 보낸 자료를 보면 2013-2015년에 수입 컬러 강판으로 대체하는 물량이 갑자기 증가했다고 전함



대한상공회의소

- 이와 같은 수입 쉐어 강판은 국내 생산을 악화 시키며 공장 가동 감소, 매출 이익, 노동인력 감축, 재고 물량 상승,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 진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와 같은 쉐어 강판으로 국내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함
 - 상공부는 국내 상품 보호 법령 제 20 조에 따라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하거나 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고 추후 수정 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이와 같은 보호 조치 적용에 따라 상공부는 각 기업들에게 조사가 진행될 상품들에 대한 수입 계약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 이전 상공부는 2016 년 3 월 국내 상품 보호 규정을 발표하고 원형 철선, 이형 철근에 대한 수입 제한을 적용했는데, 각각 23.3%, 14.2% 관세가 200 일 기한으로 적용되었다고 전함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7.20

베트남 항공사, 4성급 국제 항공사로 자리잡다

- 영국의 항공업계 서비스 평가기관 스카이트렉스(SkyTrax)는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에 4 성급 국제 항공사임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전달함
- 지난 7 월 12 일 영국에서 열린 2016 판버러(Farnborough) 국제 에어쇼 행사장에서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이 열림
- 모든 서비스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내린 스카이트렉스는 베트남 항공에 4 성급 국제 항공사를 인증하는 인증서를 수여함
- 이는 베트남 항공사의 끊임없는 개발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 멈추지 않는 발전과 성장을 인정받은 훈장이다. 이에 대해 베트남 항공은 모든 서비스 부문에서 4 성급 항공사의 기준에 맞는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함
- 쩡엥찌타잉(Duong Tri Thành) 베트남 항공 사장에게 인증서를 수여한 에드워드 플레이스테드(Edward Plaisted) 스카이트렉스 대표는 베트남 항공사가 지난 날 동안 보여준 서비스 및 상품 품질 향상 노력은 4 성급 국제 항공사들 중 하나가 되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또 짧은 시간 안에 2 종류의 신형 항공기를 도입하고 사업을



대한상공회의소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과제였지만, 베트남 항공사는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평가함

○ 쓰영찌타잉 사장은 베트남 항공에게 있어서 이번 수상은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선호하는 우수 항공사가 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약속함

○ 2015년부터 베트남 항공은 지상에서부터 기내까지 모든 서비스 부문의 품질을 높여 4성급 항공사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옴

○ 베트남 항공사는 또한 구형 항공기 대신에 에어버스(Airbus)사의 A-900XWB, 그리고 보잉(Boeing)사의 787-9 드림라이너(Dreamliner) 신형 항공기를 도입함

○ 베트남항공사는 이번 인증서 수여에 따라 세계적인 스카이트렉스 4성급 항공사인 에어프랑스(프랑스), 에미레이츠 항공(아랍에미리트), 일본 항공(일본), 대한항공(한국), 루프트한자 항공(독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됨

○ 이에 대해 쓰영찌타잉 사장은 “베트남 항공이 그 동안 해온 모든 노력은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베트남 항공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생산-경영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고 강조함

○ 1999년부터 시작해온 스카이트렉스 항공사 시상식은 지금까지 매년 열려왔으며, 중요 평가기준은 소비자들의 선택과 평가임

○ 스카이트렉스는 각 항공사를 1성급부터 가장 높은 5성급을 포함한 총 5개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정확한 국제적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의 항공사 서비스를 평가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7.20

7개의 다단계 기업 조사

○ 경쟁관리국(상공부 소속)에 따르면, 7개의 다단계 기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예상에 따르면 오는 7월말 결과를 공표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르면, 이번 다단계 기업 조사를 통해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라이선스가 철회될 수도 있다고 강조함

○ 이번 조사를 돕기 위해 상공부는 각 기업들에게 명확한 경영 활동 지출 리스트를 요청했는데 커미션, 다단계 시스템에 참여한 개인의 포상금, 각 상품 판매에 대한 통계,



대한상공회의소

다단계 판매자 인원, 회의 횟수, 회담 횟수, 교육 횟수 등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요청했다고 전함

○ 이번 상공부 소속 감사팀은 지난 3월 설립됐으며, 이번 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총 7개 기업이며 유한회사 티엔응옥밍위(Công ty TNHH Thiên Ngọc Minh Uy), 유한회사 유니씨티 마케팅 베트남(Công ty TNHH Unicity Marketing Việt Nam), 유한회사 암웨이 베트남(Công ty TNHH Amway Việt Nam), 주식회사 리엔겟 베트남 그룹(Công ty cổ phần Tập đoàn Liên K ết Việt Nam), 유한회사 프렌차이즈 탕롱(Công ty TNHH Nhượng quyền Thăng Long) 등임

○ 최근 경쟁관리국은 지속적으로 다단계 기업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위반 사실에 대한 처리를 진행해 왔는데, 어느 한 기업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3번 연속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함

○ 각 기업들의 주 규정 위반은 대부분 추가 허가 등록 인증서 부분인데, 대부분의 기업이 상품 사용법을 잘못 표기하거나 등록받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이 가장 많다고 지적함

○ 이와 같은 다단계 기업들에 대한 조사 방법에 대해 상공부 대리인은 경쟁관리국의 다단계 판매 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와 법 위반 처리에 대한 지침을 송부했으며, 추가적으로 공문을 보내 정해진 규정에 대한 실행을 요청했다고 전함

○ 이전 4월말 다단계협회는 정부 총리와 상공부,公安부 및 관련 기관에 신속한 조사, 감사를 통해 불법 다단계 활동에 대한 수사와 처리를 요청 했으며,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단계 기업들의 보호와 공정한 사업 환경 조성 운영을 위해 이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음

○ 과거 적지 않은 수의 불법 다단계 기업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다이아몬드 홀리데이(Diamond Holiday)그룹 같은 경우 2012년 9만 명에게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피해액만 3,23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MB24 기업의 경우 같은 해 107명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121,349개의 가상 상품을 판매한 혐의였으며, 피해액만 6,310억 동에 이름

○ 이어 투자회사 뽀맛찌이(Công ty đầu tư Tâm Mặt Trời)의 경우 4만 명에게 1,220억 동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2013년에 고소당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리엔겟 베트남이 6만여 명에게 1조9천억 동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힘



* 출처: Vietnam-Korea Times, 07.20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하노이, 정확한 원산지 정보 위한 생산모형 진행

- 하노이 농업 및 농촌 발전 사무소는 벨기에 BBB(Blanc Blue Belgium)육의 생산부터 소비까지를 연결한 생산방식에 기반을 둔 생산모형을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이는 소비자들이 원산지, 생산지, 생산 규정 등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조사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계획임
- 또 이 방식은 중간 공정을 과감히 줄이고 가축농가의 효율성을 높여주며 식품 안전을 보장한다. 또한 시장 수요에 맞추어 BBB 소고기의 생산에서부터 소비 과정을 연결시켜줌
- 이 연결 모형이 성공적으로 안정되면 수도 하노이의 BBB 소고기 생산 작업을 확인할 수 있음
- Sind 교배종이 F1 교배종이 되는 것에 기반한 BBB 소 교배 프로젝트는 하노이 가축 발전 센터와 화오이 가축 유한책임회사에 의해 이미 첫 단계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긍정적인
- 하노이 소고기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지적재산권 센터에 등록되었으며, F1 BBB 육 제품의 제품 로고, 코드,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도 등록된 상태라고 전함
- 하노이에서 시작한 F1 BBB 육 교배 기술은 각 지방 성,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며, 특히 황아잉차라이(Hoàng Anh Gia Lai)그룹 은 F1 BBB 소 교배 기술을 전수하여 농가들에게 그 기술을 전하고 하노이의 대표적인 가축 상품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함
- 뿐만 아니라, 하노이 농업 무역 촉진 센터는 바비(Ba Vi)현 바짜이(Ba Trại)읍에서 85-100 마리의 BBB 육 생산 및 소비 연결 모형 개발을 시행할 것이라고 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7.20

신용정보 기업은 최소 300억 동 의 공칭 자본금 보유해야



- 2010년 2월 12일 공표된 신용정보 활동에 대한 정부 결정서 10/2010/ND-CP 호의 7조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결정서 57/2016/ND-CP 호는 신용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인증서 발급 조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결정서 57/2016/ND-CP 호에 따르면, 신용정보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기업은 반드시 다음의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이는 신용정보 활동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시스템으로 최소 두 종류의 자료 전송 라인이 있어야 하며, 각 라인마다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가 있어야 하고 이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함임
 - 신용정보 공급 기관 시스템 기술 규모에 적합하고 신용 기관들을 연결할 수 있는 신용정보 기술에 관한 장비가 있어야 함
 - 신용정보 업체는 반드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서버를 갖추어야 하며, 최소 5,000,000명 대출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접속, 처리, 유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신용정보 보안 시스템과 4시간 이상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범죄, 해킹 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또한 신용정보 업체는 반드시 최소 300억 동외의 공칭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기업 관리자와 상임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해야 한다. 실행 가능한 사업 방안과 계획을 세워야 하며, 신용정보 활동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음
 - 또한 다른 신용기관과 동일한 신용정보 공급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최소 20곳의 은행과 신용정보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여야 함
 -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기관은 신용정보기관과 신용정보 공급 기관 간의 신용정보 처리, 수습, 공급 업무에 대한 규정을 담은 합의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합의서에는 공급되는 신용정보 범위, 신용정보 사용에 대한 대출 고객 통보 의무, 위법 시 처벌 방법, 충돌 해결 방법 등의 최소한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야 함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7.22

건설 감정평가 활동 조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



대한상공회의소

- 정부는 최근 베트남에서 건설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외 개인 및 기관에게 적용되는 건설 실험 및 건설 사법 감정 활동 조건에 관한 규정 내용을 담은 결정서 제 62/2016/NĐ-CP 호를 발표함
- 사법기관 평가 능력 조건 결정서는 건설법 감정사에 대해 사법 감정 법 7 조 1 항 a, b 목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모두 따라야 하며, 건설 사법 감정사는 사법 감정 법 18 조 1, 2 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의 조건 외에도, 건설법 감정사는 맡은 업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투자건설 활동의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정하는 사법 감정사의 경우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관리, 건설 시공 감독, 건설에 관한 국가 관리자 및 건설 감독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금이 가거나 건물 자체에 생긴 문제의 원인, 각 건설 자재, 사용된 기술의 품질 등에 관한 감정사의 경우 해당 감정 내용에 부합한 건설 설계, 시공, 설계 심사, 건설 시공 감사, 건설 시공 또는 건설 전문 실험 경험이 있거나 건설 감사, 시공 감사, 설계 심사, 건축 자재 품질 검사 등의 기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또한 프로젝트 투자건설 비용, 가치에 관한 감정평가사의 경우 해당 감정 내용과 부합한 투자 건설 프로젝트 관리, 건축 설계, 건축 감사 또는 투자 건설 프로젝트 비용 관리 경험이 있거나 관련된 자격증,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해당 건에 따른 감정평가 시행 조건 결정서는 사법 감정 평가법 19 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정평가 건에 따라 필요한 경험이나 자격증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투자 건설 활동이 해당 법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사법 감정평가의 경우 반드시 투자 건설 사업 관리, 건설 감사, 건설 시공 감사 등에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감정평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 규정과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함
- 또한 개인 사법 감정평가사도 반드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결정서 2 조 1 항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에 따라야 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7.22



2016년 상반기 항공 여객 수 폭발, 30% 늘어난 2500만명

- 베트남 항공국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국내 항공사 여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30% 늘어난 2500만명으로 이 중 국내 여객 수는 동+33% 늘어난 1400만명, 환승 여객 수는 동+31% 늘어난 3800만명이었다. 지금까지 여객 수 증가율은 +15~20%로, 금기의 급증이 두드러짐
- 항공 관계자는 급증의 이유에 대해서 여객 수요의 증가와 그것에 응하는 형태로 항공 노선을 확대한 것, 또 국내선을 증편한 것을 꼽았다. 국내 공항들은 여객 수 증가에 맞추어 공항의 확장 및 설비의 충실화 하고 있음
- 캣 비 국제 공항(홍강 삼각주 지방 하이퐁시)는 새 여객 터미널과 2번째 활주로가 올해 5월에 완성됐다. 노이바이 국제 공항(하노이시)은 주기장이 11곳 증설되하여 70군데로 늘었으며 편편넷 국제 공항(호치민 시)도 ATR72기종용 주기장이 4곳 늘어 50군데가 됐다. 다낭 국제 공항(남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와 캄란 국제 공항(남 중부 해안 지역 카인호아 성)에도 주기장을 증설할 예정임
- 편편넷 국제 공항에서는 국내선 터미널에 5층 입체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자동 체크인기 20대 설치, X선 수하물 검사 장비 증설 등을 예정하고 있음

* 출처: Vinahanin.com, 07.20

베트남 6월 무역 수지 1700만 USD 적자, 상반기에 17억 USD 흑자

- 베트남 세관 총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6월 수출액은 전월 대비+2.5% 늘어난 147억 2400만 USD, 수입액은 동 +1.3% 늘어난 147억 4100만 USD 이었다. 이로써 6월 무역 수지는 ▲ 1700만 USD의 적자를 냈다. 월간 기준으로 3월과 4월은 연속 흑자였지만 5월과 6월은 연속 적자로 돌아섬
-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늘어난 821억 3200만 USD, 수입액은 동 ▲ 0.8% 줄어든 804억 3300만 USD. 이로써 상반기 무역 수지는 16억 9900만 USD 흑자를 보였다. 또한 외국 기업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9% 늘어나는 반면 수입액은 동 ▲ 2.2%감소하고 있음



○ 상반기 수출액 가운데 품목별로 금액이 가장 컸던 것은 "휴대 전화 부품"의 169억 4621만 USD로 전년 동기 대비+16.0% 증가, 수입액이 가장 큰 품목은 "기계 설비 부품"의 130억 8585만 USD로 전년보다 ▲6.0%감소함

* 출처: Vinahanin.com, 07.20

베트남 오토바이 판매, 상반기 144만대

○ 베트남 오토바이 메이커 협회(VAMM)은 상반기 회원 5개사(혼다 빼아 지오, 스즈키, SYM, 야마하)의 판매 대수를 144만대, 전년 동기 대비 8%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생산량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판매 대수로 수출은 포함하지 않음

○ 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의 오토바이 시장은 포화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늘고 있다. 소비자는 기술, 디자인, 품질에 관심을 갖게 됐고 신차 소유에 의한 거액을 지출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또 기어식 오토바이 보다 스쿠터를 많이 선택 하고 있음

○ 2015년 5개사의 판매량은 280만대 그 중 최다 판매는 혼다로 200만대 가까이, 점유율은 약 70%. 다음이 야마하의 70만대 상회 25%. 뒤이어 SYM, 빼아 지오, 스즈키로 이어짐

* 출처: Vinahanin.com, 07.19

베트남 내년 최저임금 5~10% 오를듯...한국기업 인건비 가중

○ 베트남의 가파른 인건비 상승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 하락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에 기댄 단순 가공업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인구 9천만 명의 소비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동계 대표인 베트남노동총연맹(VGCL)은 현재 지역별로 108~157달러(12만~18만 원)인 월 최저임금을 내년엔 11% 인상할 것을 요구함

○ 반면 사측 대표인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4.62% 인상안을 제시함



-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 17.5%에서 2014년 14.9%, 2015년 14.8%, 2016년 12.4%로 둔화했지만 연간 두 자릿수 행진을 했다. 이는 최근 몇년간 베트남의 연평균 성장률 6%대를 넘는 수준임
 - 베트남국가임금위원회는 노사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8월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함. 베트남 정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정책 무게를 두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됨
 -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에 연동된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등 기업들의 각종 비용 부담도 커짐
 - 임충현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4천 개를 넘는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섬유, 봉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함
 - 임소장은 "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고용 증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임금이 오른 만큼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이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함
 -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에 집중돼 있다며 이 중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섬유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함
 -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단순 가공보다는 제품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며 빠르게 확장하는 베트남 소비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세울 것을 주문함
- * 출처: Yonhapnews, 07.22

베트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12명 추가 입국금지

-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베트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개인 12명에 대해 추가로 입국금지 등 여행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짐
-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6월 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 명단을 관련 기관에 모두 보내 여행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힘
- 베트남은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제재 대상인 16명에 대해서 4~5월 여행 금지 조치를 함



대한상공회의소

- 이중 북한 해외판매 무기대금의 자금세탁과 반출 의혹을 받는 단천상업은행의 최성일 베트남 부대표는 4월 말 자진 출국 형식으로 사실상 추방됨
 - 이와 함께 베트남은 2009년과 2013년 북한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의 제재 명단에 오른 12명에 대해서도 뒤늦게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짐
 - 이와 관련, 베트남 국영 베트남항공 북부지사는 이달 4일 항공권 판매 대리점들에 이들을 탑승금지 대상 북한인으로 통지함
 - 이들은 2013년 1월 안보리 결의 2087호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 위성통제센터장 등 4명, 같은 해 3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등 3명임
 - 2009년 7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연구소장 등 5명도 있음
 - 이에 따라 베트남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여행 제한 조치를 한 북한 인사는 총 28명으로 늘어남
 - 한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제재 동참에 소극적이던 베트남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이행하면서 그 이전의 안보리 결의도 뒤늦었지만 이행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실효성은 낮지만,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함
 - 베트남 정부는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대북제재 대상인 개인, 단체의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가 있는지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음
- * 출처: Yonhapnews, 07.21

굿피플-씨젠의료재단, 베트남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 국제개발협력 단체인 굿피플은 베트남 소외 계층에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자 씨젠의료재단과 함께 현지의 노후한 보건소를 재건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힘
- 양측은 베트남 북부 푸토성(省) 농짱 지역의 주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억 7천여만 원을 들여 현지 보건소의 건물과 시설을 보수할 계획임
- 이 보건소는 1988년 지어진 유치원 건물을 용도 변경한 것이어서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이 큼



- 굿피플 관계자는 "지구촌의 소외된 이웃이 제대로 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함
- 질병 검사 전문기관인 씨젠의료재단은 저개발국 주민을 찾아가 의료 봉사를 하고, 건강 검진 물품을 후원하는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을 펴고 있음
- * 출처: Yonhapnews, 07.20

유커에 빨난 베트남 관광도시 다낭 상인들 "中 위안화 NO"

-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의 잇단 추태에 화가 난 베트남 대표 관광도시 다낭시의 상인들이 중국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함
- 20 일 온라인매체 베트남넷에 따르면 다낭시에 있는 음식점과 상점들이 중국어와 영어 등으로 중국 위안화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만들어 내걸고 있음
- 이는 유커들이 음식이나 물건값을 베트남 화폐 대신 위안화로 내겠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잦고 이 과정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임
- 지난달 다낭의 한 술집에서는 한 유커가 "베트남 돈을 다 썼다"며 위안화로 술값을 낸 뒤 베트남 화폐를 꺼내 불태웠다가 추방됨
- 이달 초에는 다른 유커가 거리 상인에게 바나나 값으로 위안화를 내밀며 괴롭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페이스북을 통해 퍼지면서 유커들의 추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짐
- 중국인은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관광객으로 지난해 178 만 명이 찾았다. 상당수 유커는 다낭을 주요 관광지로 선택하고 있음
- 다낭의 상인 응우옌 두이 코아이는 "많은 국가의 관광객이 찾는 데 중국인을 제외한 모든 고객이 베트남 화폐로 지불한다"며 "유커들은 주머니 속에 베트남 화폐가 있지만, 위안화를 낸다"고 비판함
- 보 민 베트남중앙은행(SBV) 다낭지부장은 유커들이 베트남에서 위안화를 쓰는 것은 베트남 화폐 사용만 허용한 관련법 위반이라고 지적함
- 최근 베트남에서는 중국인 불법 여행가이드들의 베트남 역사 왜곡,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국제법정 판결에 대한 중국의 수용 거부 등으로 반중 정서가 확산하고 있음
- * 출처: Yonhapnews, 07.20



베트남비관세장벽 대응채널 구축된다

제 1 차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개최

- 베트남의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이 가동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 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기술표준원 (STAMEQ)과 제 1 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무역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TBT 는 비관세장벽 가운데 하나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말함
- 이번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는 한·베트남 FTA 발효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 양국은 시험·인증 분야 상호인정, 기술규제 정보교류와 표준화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로 함
- 이날 우리 정부는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제품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측에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인증시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 제도를 개선해주고 내년 4 월 시행 예정인 휴대기기용 리튬이온 배터리 강제인증 제도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전품질인증이 지연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기업에 대한 조속히 공장실사를 촉구함
- 국표원은 “이번 회의는 지난 수년간 5~6%의 성장을 하며 ‘넥스트 차이나’라는 평가를 받는 베트남과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힘

* 출처: Etoday.co.kr, 07.16

산재 직업병의 위험성이 높은 11개 업종의 노동 안전 위생 대책 의무화

-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는 노동 안전 위생 대책에 관한 통달 제 7 호/2016/TT-BLDTBXH 를 공포했다. 이 통지에서는 산업 재해 사고 또는 직업병의 위험성이 높은 11 개 업종에 대한 노동 안전 위생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대상 11 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 채광, 코크스 생산, 석유 정제
 - ◇ 화학품,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 ◇ 금속을 원료로 한 제품의 생산
 - ◇ 비금속 광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생산
 - ◇ 건설 공사
 - ◇ 선박 건조·수리
 - ◇ 발전·송전, 배전
 - ◇ 수산물·수산물 가공·보존
 - ◇ 직물 의류 피혁, 신발 생산
 - ◇ 스크랩 재활용
 - ◇ 환경 위생
 - 이와 같은 11 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노동 안전 위생이나 직업병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리스크를 사칙, 워크 플로에 포함시킴
 - 또한, 근로자에 대해서 직장에서 위험 요소 및 유해 요소를 인식시키는 동시에 이들을 예방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함
- * 출처: Vinahanin.com, 07.22

베트남 2016년 상반기 통신 분야 매출액 93조 5000억 VND

- 베트남 정보 통신부는 12 일에 열린 2016 년 상반기의 업무 총괄 회의에서 베트남 통신 분야의 상반기 총 매출액이 약 93 조 5000 억 VND 에 이르렀다고 밝힘
- 여기에는 휴대 통신 대기업, 국방부 산하의 베트남 군대 통신 그룹(Viettel Group)의 해외 사업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음
- 주요 정보 통신 기업의 실적 발표를 보면, 베트남 우편 통신 그룹(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Group=VNPT)의 매출액은 63 조 VND 으로 연간 목표의 56%를 달성했다. 휴대 전화 신규 계약 수는 약 130 만건임
- 모비폰(Mobifone)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9%증가하고 이익은 연간 목표의 56.1%, 휴대 전화의 신규 계약 수는 연간 목표의 60%를 달성함



- 휴대 전화의 제 2 세대(2G)서비스에서 3G 서비스로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지만, 6 월 말 시점의 2G 의 계약 건수는 대략 8400 만건이며 3G 는 약 3800 만건에 머물고 있음
- 고정 전화의 계약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730 만건 남게 됐다. 모든 전화의 계약 건수는 1 억 3300 만건.광대역 인터넷의 계약 건수는 약 850 만개로 증가함

* 출처: Vinahanin.com, 07.19

2017년 최저 임금 안 노동 총연맹 + 11%인상 제안, 노사간 괴리

- 베트남 노동자를 대표하는 베트남 노동 총연맹은 2017 년 최저 임금을 지역에 따라서 + 25 만 ~ 40 만 VND,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약+ 10.0~11.0%인상안을 제안하고 있음
- 노동 상병 보훈 사회부가 13 일 주최한 새 사회 보험 정책 대화 포럼에서 밝혀짐. 노동 총연맹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20%가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저축을 하는 근로자는 불과 8%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것임
- 그러나 베트남 봉제 협회(VITAS)의 부회장 겸 사무국장은 사이공 타임스 인터뷰에서 봉제업계뿐 아니라 그 외 업계의 기업들이 2017 년 최저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밝힘
- 정부를 대표하는 국가 임금 심의회 회장으로 노동 상병 보훈 사회부 차관은 2017 년 최저 임금 인상폭이 전년 + 12.4%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저 임금 안은 7 월 말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전망임

* 출처: Vinahanin.com, 07.19

자동화로 섬유 신발 제조 노동자 86%가 실직 걱정 - ILO 보고

- 국제 노동 기구(ILO)는 최근 제조업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3D 프린터를 비롯한 선진 기술의 보급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연합(ASEAN) 5 개국의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를 정리함
- 보고는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섬유·봉제와 구두 제조를 지적, 이것들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들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에서 86%, 캄보디아에서 88%, 인도네시아에서는 64%가 향후 20년 이내 실직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림

○ 이들 5개국의 주요 산업 전체를 보면 급여 근로자의 56%인 1억 3700만명이 실업에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는 태국 근로자의 70%넘게, 인도네시아의 60% 이상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

○ 영자계 언론에 따르면 보고 내용에는 베트남에서 지난해 어느 봉제 기업이 재단 공정에 기계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기계 1대에 근로자 15명이 줄고, 1년 반을 경과한 시점에서 분명히 비용 삭감 효과가 이르고 있다고 지적함

* 출처: Vinahanin.com, 07.16